

이란, 참가채(participation bond) 발행 한도 확정

□ 이란 정부 각의는 6월 2일자로 정부 및 정부기관들의 2002/03년 참가채 발행 한도를 8조 리알(U\$10억)로 확정

- 이란에서는 이슬람 율법이 금지하는 이자 개념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 수평 대신 고정된 수익의 분배에 참가한다는 형태로 참가채, 또는 참가증서로 이름을 붙여 실질적인 채권을 발행
- 수익률이 고정되어 있고 양도가 가능하며 면세 혜택이 있음

* 원래 미국의 참가증서(Certificate of Participation)의 경우 증서 구입자는 프로젝트 지분(equity)의 소유자로 간주되는데, 참가채의 발행자는 참가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프로젝트 건설을 프로젝트 자산의 리스 형태로 지원하고 대가로 리스료를 받음. 채권 구입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리스료의 분배에 참가하는 것이 됨.

- 참가채로 조달한 자금은 정부 예산 재원을 이루면서 정부 부처와 관계 기구들의 지출에도 사용될 것임
- 매각은 국영은행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발행수익률은 1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 발행 내역

발행자	발행한도
에너지부와 관계 기구들	2.6조
(물 사업)	(1조)
통신부	2.0조
농업부	2.8조
기타	0.6조

□ 한편 중앙은행은 별도로 은행들의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참가채 발행이 허용되어 있으며, 금년중 18조 리알(U\$22.5억)의 참가채 발행에 대해 각의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중앙은행 발행 참가채의 발행수익률은 연율 17%, 만기는 1년으로 예정되어 있음